

“5·18정신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목소리

광주시, 국회서 전문가 토론회
민주화 기여 시대적 가치 반영
헌법 규범화 이미 국민적 동의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5·18 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가 포함돼 후속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5월 정신의 헌법 전문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21일 열린 ‘5·18 정신 및 인권보장의 헌법규범화’ 토론회에서 1987년 이후 30년만의 헌법 개정 국면을 맞아 각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열린 5·18 정신 헌법규범화를 모색하기 위해 처음으로 열렸고, 5·18진실규명역사추진위원회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국가인권위원회 후원으로 5·18국정과제 실행추진위원장인 안종철 박사가 좌장을 맡았다.

특히 헌법 개정과 관련,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인권보장, 촛불항쟁 등 시대적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열려 관심을 모았다.

한동대학교 이국순 교수는 “4·19와 5·18을 6월 민주화 대항쟁이라는 정치적 기적의 전조”라고 평가한 뒤 “국민은 한국 사회를 1987년 6월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시도에 ‘촛불혁명’으로 결연히 저항했다”고 밝혔다.

또 전북대학교 송기춘 교수는 “헌법은 부단하게 변화하는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재인 정부가 ‘5·18 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를 국정과제를 선정 후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5·18 정신 및 인권보장의 헌법규범화’ 토론회 모습. <광주시 제공>

변화를 포섭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민주화의 성과를 반영하는 헌법 개정의 가능성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 정신의 헌법 규범화 필요성을 다룬 2세션에서는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논의가 더욱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전남대학교 민병로 교수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투쟁이자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시민들의 저항권 행사였던 5·18민주화운동의 계승과 저항권 조항의

헌법 규범화를 통해 저항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명백히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 헌정사에서 한 획을 그은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주권혁명’을 이룬 주권자의 위대한 헌법정신을 헌법에 담아냄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주권자의 강력한 의지와 긍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영재 박사는 “2016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진행한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의 결과 국민은 민주화운동의 사회 발전 기여도에

대해 ‘기여했다’라는 응답이 72.2%였고, 2017년 조사에서 ‘5·18에 대한 민주화 기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9%가 기여했다고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처럼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인식이나 기념·계승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평가를 고려할 때 5·18의 헌법 규범화에 대해 국민적 수준에서는 이미 충분히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시내버스 ‘점자 노선 안내 책자’ 발간

광주시, 1000부제작 배포

시각장애인을 위한 광주 시내버스 노선 정보 등을 담은 ‘점자 노선 안내 책자’(사진)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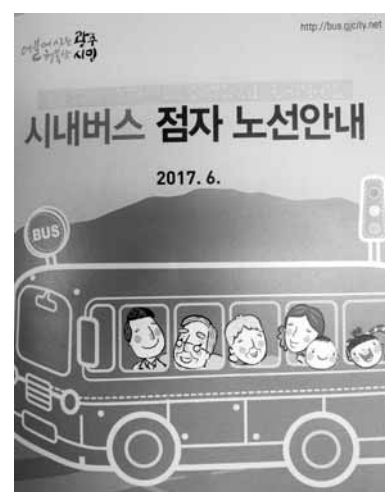
광주시는 23일 “시각장애인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시내버스 점자 노선안내 책자 1000부를 제작해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협회, 점자 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시내버스 노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 책자를 발간해왔다.

이번 점자 책자에는 노선 점자와 함께 약시자도 볼 수 있도록 부록으로 굵고 큰 글자로 인쇄한 목차도 담아 활용성을 높였다.

광주지역에는 시각장애인 7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책자는 시



각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췄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스탬프 투어 ‘출발~’

여름방학 어린이 등 대상
오늘부터 다음달까지 실시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김성화)가 여름방학을 맞아 24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어린이 등 시민을 대상으로 ‘광주도시철도 스탬프 투어’를 한다.

스탬프투어는 승객이 리플렛에 표기된 미션에 직접 방문, 해당 역의 고객안내센터에서 확인 스탬프를 받아 모으는 행사다. 스탬프투어 참여자는 A코스나 B코스 중 선택할 수 있다. 각 코스는 5개역씩 나누어있다. 각 코스를 완주한 선착순 1000명에게는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선물한다.

각 코스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역(세계

인권전시관), 문화전당역(5·18기념홍보관) 등 광주의 문화·인권 등을 체험하는 테마역과 광주송정역의 ‘1913송정역시장’, 남광주역의 ‘남광주시장’ 등 역사관광명소를 아우르며 도시철도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달 말까지 공사 블로그(http://blog.naver.com/grtc)에서 댓글미션을 수행한 20명을 추첨, 시원한 방수를 증정하는 ‘cool summer’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8월 8일에는 광주시 동구 살레시오여고에서 ‘고고릴레이’ 이벤트를 펼쳐 신나는 공연과 퀴즈쇼 등으로 학생들의 스트레스까지 날리는 시원한 한 때를 선사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수영대회 조직위 부다페스트서 홍보

조영택 사무총장 FINA 회의 참석 준비 상황 소개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위원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는 23일 “2017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부다페스트 대회 국제수영연맹(FINA) 총회 등에 잇따라 참석해 차기 대회인 제18회 광주수영선수권대회를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1일에는 조영택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이 FINA 경영기술총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계 183개 연맹 대표단에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와 광주대회 경기장을 비롯한 준비 상황 등을 소개했다.

각 연맹 대표단 370여명은 광주수영대회 조직위에서 제작한 5분 분량 홍보영상을 보고서 박수갈채를 보내는 등 광주대회

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조직위는 또 각종 외국 매체와 인터뷰하며 광주를 홍보하고 있으며, 26일에는 부다페스트대회 주경기장 프레스룸에서 외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광주대회 준비 상황을 소개할 계획이다.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는 앞서 20~21일 부다페스트대회 조직위가 주관한 대회참관프로그램에 실무자 등을 파견해 대회 준비와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회 개최 비법 전수에도 힘썼다.

한편 제18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19년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8개 연맹 1만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



어린이 초청 야구 관람 광주도시공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21일 영구임대 주택 어린이들을 초청 프로야구경기 관람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도시공사 취미클럽중 하나인 야구동호회에서 지역 어린이들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광주도시공사 제공>

장애인 인권침해·보조금 횡령 물의 복지법인 정상화

기존 이사 7명 모두 교체

광주시는 23일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A 사회복지법인을 정상화시켰다”고 밝혔다.

이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회는 13일 대 표이사를 비롯한 이사3인을 해임 의결했으며, 시는 임시이사 3인을 추가 선임함으로써 기존 이사 7인을 전부 교체했다.

또 임시이사회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환경철 원장을 법인 임시 대표이사로 선출하고, 법인출연자(대표이사) 해임에 따른 제3자에 의한 법인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정지로 이사의 정수 확대(7인

→9인) 및 연임 제한(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 외부추천이사 비율 상향조정(정수의 1/3 이상→1/2 이상)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시설 운영위원회 및 인권지킴이단 정비, 무연고 거주인의 법적 권리구제 등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정 등 시급한 문제 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대표이사의 권위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이 사회복지법인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관공무원, 의회의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대책회의’를 운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화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 · 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